

작품 내용

제 목	지문이 머물던 자리
내 용	깜빡이는 커서 앞 백스페이스 키에 눌러 사라진 문장들의 무덤 밤새 지웠다 고쳐 쓴 머뭇거림의 흔적은 어떤 알고리즘의 프롬프트에도 찍히지 않는다 단 몇 초 만에 쏟아지는 매끄러운 문장들 기계의 언어는 결코 차가운 액정을 넘어 피로한 눈꺼풀의 온도를 건너지 못한다 타인의 생각을 긁어모아 만든 번듯한 가공품 위로 고뇌의 습기가 서릴 수 없는 이유 오타를 고치려 멈추었던 손가락의 떨림 키보드 판 위에 묵묵히 패인 고독한 흔적들 세상이 완벽함이라 쉽게 재단하려 할 때 지문은 요란하게 소유를 주장하지 않는다 밤을 지새운 자만이 남길 수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붉은 인장 저작권은 그 흉터에 이름을 붙여주는 일 차가운 정적 속에서 내 체온을 지켜내는 일이다